

발간사	설영자 경운박물관 관장 최 환 국립대구박물관장 직무대리	4
프롤로그	겨울을 건너는 차림의 시작	6
1부	갓두루마기 조선의 외투, 명품으로 남다	20
2부	털마고자, 갓저고리 가슴부터 따뜻해지는 온기	32
3부	털배자 겹쳐 입는 따뜻한 지혜	52
4부	난모, 털토시, 가죽신 머리에서 손과 발로 이어지는 패션	74
5부	모피의 확장 의복의 경계를 넘어선 품격과 온기	98
논고	안인실 · 이민정 전통 갓옷에 사용된 모피와 제작 기법: 경운박물관 전시 유물을 중심으로	114
도판목록		132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김없이 두터운 옷을 꺼내며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합니다.

이번 전시 『갓옷, 겨울을 건너다』는 과거로 돌아가 당시 추위를 이겨내기 위한 선조들의 숨씨를 되새기며 복식에 담긴 지혜와 정성 그리고 그 안에 스며든 삶의 흔적을 조망하고자 합니다. 갓옷은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의 필요와 취향, 품격과 기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우리 복식문화의 깊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갓옷’은 동물의 모피나 가죽을 안감이나 겉감으로 사용하여 보온성을 높인 우리의 겨울 복식입니다. 그 기원은 선사시대 혹은 지역의 생존 복식에서 시작되어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서 가죽옷과 가죽신을 착용한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모피와 가죽을 착용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됨에 따라 사대부 부녀에게는 초구(貂裘, 담비가죽 옷)의 사용을 금할 정도였습니다. 이는 갓옷이 조선시대 복식에서 대표적인 사치품으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전시를 공동 주관해 주신 국립대구박물관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중한 유물을 대여해 주신 국립민속박물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안인실·이민정(연우 전통침선연구소, 난모 및 털옷 숙련기술전수자), 그리고 전시의 기획과 실행을 위해 애써주신 경운박물관 운영위원, 학예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5년 9월
경운박물관장 설영자

국립대구박물관과 경운박물관은 2021년 「李利子 추모 한복전 손끝의 정성, 예술이 되다」, 2022년 「아름다운 기증, 소중한 모음Ⅳ」에 이어, 세 번째 공동기획전으로 「갓옷, 겨울을 건너다」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복식 재료 중 하나인 ‘모피’를 주제로, 우리 전통문화의 다양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모피로 지어진 털옷과 매끈한 가죽신에는 추위를 견디며 살아온 조상들의 지혜와 기품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의 전란과 여러 차례의 국가적인 규제 속에서도 민간 사회에 스며들며 다양하게 만들어진 ‘갓옷’은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한 조상들의 생활 지혜와 함께 그들의 삶의 일면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국립대구박물관은 2020년부터 복식문화 특성화 박물관협의체를 운영하며, 경운박물관과 함께 복식문화의 활성화와 학술 연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 우리 전통복식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전시가 그 관심에 부응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전시 준비에 애써주신 경운박물관 설영자 관장님과 박물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5년 9월
국립대구박물관장 직무대리 최환



EXPOSITION DE 1900
Pavillon de la Corée

프롤로그

겨울을 건너는 차림의 시작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했던 겨울, 사람들은 체온을 지키기 위해 사소한 옷매무새에도 정성을 다했다. 단순한 방한을 넘어 몸을 보호함과 동시에 삶의 격을 드러내는 방식이었다. 그 속에는 신분과 예의, 계절을 대하는 태도까지 담겨 있었고, 갓옷은 그렇게 조선 사람들의 겨울을 감싸며 길고 추운 시간을 건디는 복식이었다.

임원경제지 林園經濟志

조선 후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조선 후기 실학자 서유구(徐有榘, 1764~1845) 가

영농방법 및 정부의 농업 정책을 비롯한

어업·의학 등 농촌의 생활 전반을 다룬

정책서로 총 113권 52책이며 필사본이다.

《섬용지(簾用志)》권 3에 복식을 비롯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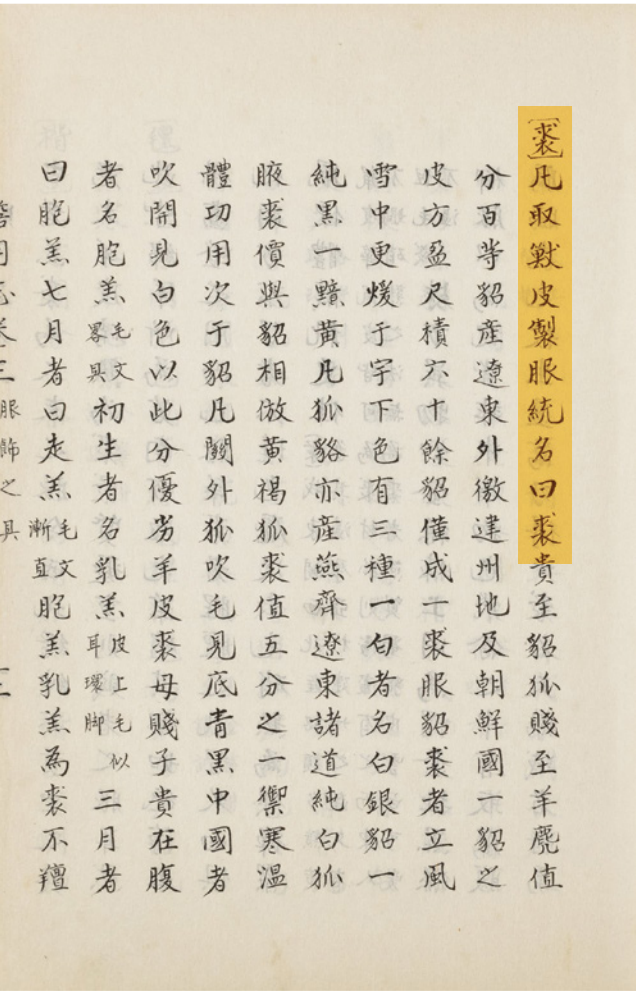
집안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전반적인

도구들을 복식도구, 몸 씻는 도구와 머리

다듬는 도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구,

색을 내는 도구 등 총 4부분으로 구성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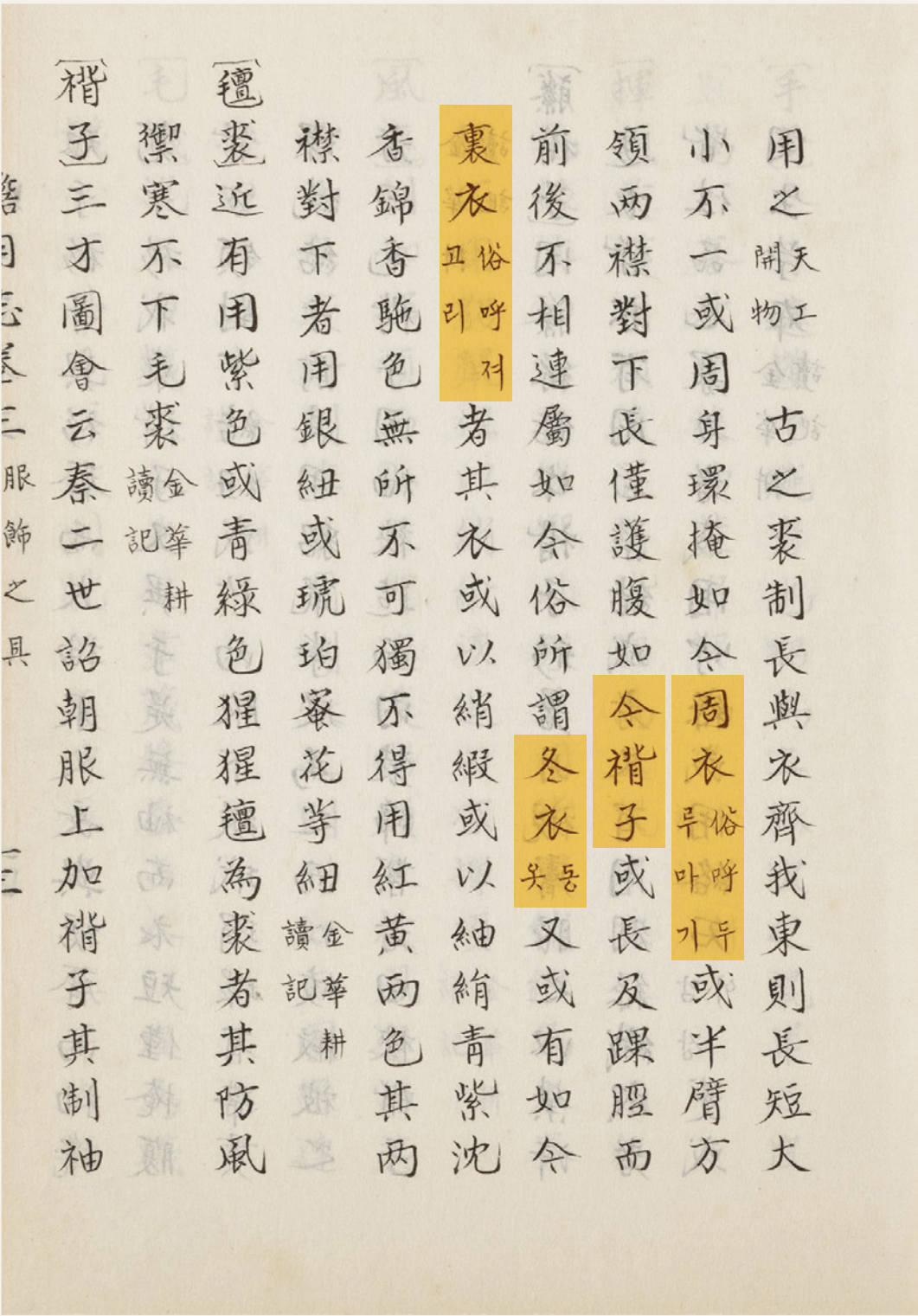


裘

凡取獸皮製服, 統名曰“裘”

“일반적으로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통틀어 ‘갓옷’이라 한다.”

-서유구, 『임원경제지』 23책 섬용지(簾用志) 권3
복식도구 「옷과 갓옷」



『임원경제지』 갓옷의 4종류 구분법

周身環掩如今周衣	은몸을 두루 돌아 감아 주의(周衣, 두루마기)와 같은 형태
半臂方領 兩襟對下長僅護腹如今褙子	방령(方領)에 맞여밌을 한 배자 형태
長及踝 脛而 前後不相連 屬如今俗所謂冬衣	포(袍) 형태이지만 두루마기와 달리 트임이 있는 동의(冬衣, 겨울옷)
有如今裏衣	저고리와 같은 형태

우암 송시열 초구 일령 尤庵 宋時烈 貂裘 一領

등길이 81 화장 92 품 55

보관처 (국립청주박물관 보관), 소장처 (송정훈 소장품)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유산

1658년 12월 효종이 송시열(宋時烈, 1607~1689)에게 하사한 담비털 저고리貂裘이다. 이 초구는 효종의 복벌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효종은 송시열에게 초구를 하사하며, 이 초구를 입고 함께 추운 요동 지방을 정벌하러 가자고 당부하였다.



백모관(白毛冠)을 쓰고 있는 우암 송시열 초상
국립중앙박물관 자료 제공

“요즘 이조 판서 송시열이 착용한 의복을 보건데 매우 얇아 추위에 고생할까 염려된다. 그래서 이 초구(貂裘)를 지었는데, 내가 병 때문에 직접 줄 수가 없으니 정원이 이 옷을 전해주고 겸하여 내 뜻을 유시하여 사양하지 말게 하라.”

- 효종실록 20권, 효종 9년(1658년) 12월 10일

01. 송시열 초구 宋時烈 貂裘 재현품

등길이 81 화장 92 품 55

제이원랩 제작



기산 김준근 조선풍속도 (스왈른 수집본)

1890년대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자료 제공

담비는 족제비과 포유류로 족제비보다 조금 크다. 나무에 오르고 있는 그림 속의 담비는 몸이 전체적으로 가늘며 발톱이 예리하게 표현되어 있다. 초구貂裘는 담비의 모피로 만든 갓옷으로 초구 한 벌에는 담비 가죽貂皮 60장 정도가 필요할 정도로 많이 쓰였다.



담비(貂皮)



가죽 두루마기를 입은 노인

20세기
만농 홍정표 촬영
제주대학교박물관 자료 제공

개가죽 옷에 얹힌 조선 백성들의 애환

“저 백성들이 겨울에 입는
것이라고는 개가죽 옷 한
가지라서 추위를 무릅쓰고 멀리
부역하러 가서는 얼어 죽는 자가
많으므로 대단히 불쌍합니다.”

- 명종실록 26권,
명종 15년(1560년) 12월 28일

“난리 이후로 양계(兩界)의
토병(土兵)에게 납의(納衣)와
구피의(狗皮衣)를 만들어 주지
못하였다.”

- 선조실록 184권,
선조 38년(1605년) 2월 27일

“북병영(北兵營)에는 목면(木綿)이
없어서 백성들이 모두
개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있습니다.”

- 영조실록 22권,
영조 5년(1729년) 5월 6일

조선시대 변방의 백성들과 군사들이 추위를 막거나 방한을 위한
옷감을 구하지 못했을 때 개가죽 옷을 많이 만들어 입었다. 특히
제주 지역은 기후와 목축 특성상 이런 개가죽 두루마기를 많이
착용했는데, 가죽 감태를 쓰고 가죽 두루마기를 입고 가죽버선과
가죽신을 신었다. 개가죽은 쉽게 구할 수 있었고 가죽이 가볍고
부드러우며 보온성도 높았다. 가죽 두루마기는 보통 개가죽
12마리 내외로 만들었다.

개가죽 두루마기 狗皮衣

1880년대
등길이 110 화장 73 폭 50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02. **방령포** 方領袍 재현품
Square Collared Robe

등길이 143 화장 120
안인실 소장

충장공 忠壯公 남이흥 南以興(1576~1627)의 녹피방령포를 재현한 것이다.
남이흥 장군은 1602년(선조 35)에 무과에 급제한 후 중군대장으로
있을 때 이괄의 난(1624)을 평정하였다. 1627년(인조 5) 정묘호란
중 평안도 안주성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하였다. 녹피방령포는
사슴가죽으로 만들어진 방탄용 내갑의 內甲衣로 네모난 방령깃에
합입이며 앞여밈에 바대를 대었다. 도련과 수구에는 백피 白皮로
선장식을 둘러싼 흔적이 남아 있다. 국가민속문화유산 「남이흥장군
일가 유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충장공 남이흥의 녹피방령포와 일습인 녹피바지를
재현한 것이다. 이 바지는 임진왜란 이후 등장한
사복바지의 형태로 지금의 사복바지와 사복의
형태가 다르다. 사복바지는 원통형의 허리부분과
마루폭, 사복들로 구성되어 있다.

바지 袴 재현품
Pants

길이 112.5
안인실 소장



결혼식 하객

1936년
도서출판 책과 함께 자료 제공
《영국화가 엘리자베스 키스의 올드
코리아》, 송영달 옮김, 책과함께,
2020.

엘리자베스 키스(Elizabeth Keith, 1887~1956)가 제작한 다색동판화로 결혼식 하객이 남바위를
쓰고 안감에 털이 보이는 갓두루마기를 입고 있다.



03. 아얌 쓰고 갓두루마기 입은 여인

20세기 초
가로 9 세로 14
박상진 기증

조선 풍속 사진엽서 속 기생은 아얌을 쓰고
테모가 뚜렷하게 보이는 갓두루마기를
입었으며 긴 털토시를 착용하였다.

아얌 쓰고 갓두루마기 입은 여인

19세기 말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도서관 자료 제공

1890년 미국 장로교 선교사로 내한하여
1936년까지 활동한 새뮤얼 오스틴
모펫 (Samuel Austin Moffett, 1864~1939) 수집
사진으로 두 여인은 옷의 가장자리와
안감에 털을 단 갓두루마기를 입고
긴 털토시를 착용하였다.



신학교 졸업사진

20세기 초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도서관 자료 제공

1907년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로

내한하여 평양에서 활동한 앨리스

버츠(Butts, Alice M. 1879~?) 수집 사진으로 중앙

여인은 갓저고리, 우측 여인은 털배자를

입고 있다.



연해주 지역 부인 전도회

1932년 2월 17일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도서관

자료 제공

선교사 앨리스 버츠(Butts, Alice M. 1879~?)

수집 사진으로 앞줄 좌·우측 끝 두

여인은 갓저고리, 뒷줄 여인 대부분이

갓저고리와 털배자를 착용하고 있다.



한국 혼례의 복장

1910년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도서관

자료 제공

선교사 새뮤얼 오스틴 모펏(Samuel Austin

Moffett, 1864~1939) 수집 사진으로 추운

날 야외에서 혼례할 때 신부는 기본

혼례복에 털배자를 착용하였다.

1부 갓두루마기

조선의 외투, 명품으로 남다



갓두루마기는 겨울 외출복 중 가장 격식을 갖춘 옷으로, 신분과 품위를 상징했다. 안에 덧댄 솜과 모피는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실용을 더했다. 복식의 구조와 소재, 마감 처리까지 섬세하게 이루어진 이 옷은 단순한 외투를 넘어 명품이라 부를 만한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

04. **갓두루마기** 周衣
Fur-lined Coat for Women

1960년대
등길이 128 화장 70.6 품 55
민병위 기증

겉감은 회보라색에 황금색 꽃무늬가 있는 문단^{紋緞}이며 안에
토끼털을 뒀다. 설패와 무가 있는 옷으로 소매는 좁으며 길이는
종아리와 발목 사이까지 내려온다. 끈은 깃으로 동정과 옷고름이
달려 있다. 동정은 종이 심을 넣어서 만든 기성품을 사용하였다.
옆 솔기에 손을 넣을 수 있는 트임이 있다.





유라시아 붉은 다람쥐

기증자의 어머니 주정순(1921~2009) 유품으로 진보라색 문단紋緞
겉감에 회갈색 청서 털을 넣어 만들었다. 서울지역에서 착용했던
것으로, 아버지가 아들의 명문고 입학을 축하하며 어머니에게
수고했다는 의미로 지어준 갓두루마기이다.



05. 갓두루마기 周衣
Fur-lined Coat for Women
1950년대
등길이 111 화장 68 품 53
이춘방⁽⁵⁰⁾ 기증



“어느 추운 겨울에 모피와 가죽을 다룰 줄 아는 백발의 장인을
집으로 초대하여 몇 날 며칠을 정성스레 밥을 지어 먹이시며
갓두루마기를 짓게 한 것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 갓두루마기 기증자 이춘방^(50회) 인터뷰 중



서피(鼠皮)

기산 김준근 조선풍속도(스왈른 수집본)

1890년대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자료 제공

회색빛이 나는 청서피(靑鼠皮)는 갓옷의 재료로 적합했다. 『임원십육지』에 조선시대 서피(鼠皮)는 모두 구의(裘衣) 재료로 사용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갓두루마기는 기증자의 할머니 이정은(1898~1950) 유품이다. 회갈색 문단에 광목 심지를 배접하고 안쪽에 남보라 소화문단(小花紋緞)으로 밀단, 겹섣단, 안섣단, 안깃, 수구에 선단을 넓게 대고 안은 청서피(회색 다람쥐 털)로 두루마기 형태를 만들어 풀칠로 덧대었다. 안감의 흰 부분은 청서피(회색 다람쥐 털)의 배쪽 무늬이다. 털은 두루마기 치수보다 작게 하여 남보라 선단이 보인다. 어깨선 안쪽으로 6cm 정도 접어넣고 바느질하여 마치 앞뒤 길을 이은 것 같이 보인다. 이는 해지거나 푸새한 후 줄어드는 것에 대비하여 넉넉하게 여유를 주기 위함이다.

06. 갓두루마기 周衣

Fur-lined Coat for Women

20세기 초

등길이 116 화장 70.5 품 53.5

이미영⁽⁵⁴⁾ 기증



갓두루마기 周衣
Fur-lined Coat for Men
19세기
등길이 104 화장 74 품 62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담인복식미술관 소장

이 갓두루마기는 남성용으로 어린 양털의 안감만 남아있던 것을 회색 단으로 겹감을 만들고 가장자리에 테모를 둘러 완성하였다.



기증자의 시할아버지 채홍래 (1895~1934) 가 생전에 착용했던 갓두루마기이다. 이 두루마기는 어린 양털 안감을 두었으며 2개의 서양식 단추로 간편하게 여밀 수 있도록 하였다.



07. 갓두루마기 周衣
Fur-lined Coat for Men
20세기 초
등길이 118 화장 69 품 57
박경숙⁽⁶⁵⁾ 기증

2부

털마고자, 갓저고리

가슴부터 따뜻해지는 온기



몸에 가장 가까이 닿는 저고리는 따뜻함의 시작이었다. 겨울이면 털을 덧대고 걸감을 꾸며, 한 벌의 저고리 안에 정성과 계절감이 함께 깃들었다. 일상과 격식을 모두 갖춘 옷, 그것이 털마고자, 갓저고리였다.

08. **마괘** 馬褂
Outer Jacket
19세기 말~20세기 초
등길이 69 화장 79 품 55
이홍주 기증

대한제국 황실 종친 맹현가 원순군 집안의 이달용(李達鎔, 1883~1948)이 착용하던 마괘이다. 안감은 여우털로 되어 있으며 가장자리 선으로 보이는 부분은 여우 배쪽 털을 재단하여 붙인 것이다. 마고자의 기원이 되는 마괘는 1885년 흥선대원군이 청나라에서 귀국할 때 착용하여 조선에 널리 퍼졌으며, 이후에도 황실 종친과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시절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애용하였다.



마괘를 뒤집어 여우털 안감을 펼친 모습

기산 김준근 조선풍속도
(스왈른 수집본)

1890년대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자료 제공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에 여우 가죽인 호피狐皮가
150차례 이상 등장한다.
긴 길 털과 부드럽고 짙은 솜
털을 갖고 있어서 애용됐다.



여우(狐皮)

09. **마고자** 馬古子
Outer Jacket
1950~1960년대 추정
등길이 63 화장 78 품 63
이춘방⁽⁵⁰⁾ 기증

기증자의 아버지인 이중화(1899~1981)가 생전에 착용한
털마고자이다. 겉감은 문단^{紋緞}, 안감에는 살렝이털을 두었고 매미
모양의 옥 단추로 여몄다. 마고자를 지을 당시에 침모와 갓바치가
며칠동안 묶으면서 옷을 지었는데 당시에 갓옷이 유행하여 1급
기술자를 구하지 못해 2급 기술자가 만들었다고 한다.



살(狸子皮)

기산 김준근 조선풍속도(스왈론 수집본)
1890년대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자료 제공

살(살렝이)의 등은 누르스름하거나 검은
갈색이고, 몸과 꼬리에 검은 반점이
있으며 털은 거칠고 뽕뽕하다.



매미모양의 옥 단추

10. 마고자 馬古子

Outer Jacket
1940년대
등길이 53.5 화장 76 품 54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겉감은 청회색의 만자초화문단(卍字草花紋緞)에 안감은 양피(羊皮)를 겉감과 같은 크기로 넣었다. 옆선 트임이 없고 고름으로 여미도록 되어 있다. 평양의 상류층에서 입었던 옷이다.



양(羊皮)

기산 김준근 조선풍속도(스왈론 수집본)

1890년대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자료 제공

양털은 갓난 먼양 또는 출산 전의 양털 가죽이 애용되는데, 얇고 짧으며 곱슬한 털이 특징이다.

11. 갓저고리 襦

Fur-lined Jacket for Women
20세기 초
등길이 39 화장 74 품 60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평양 지방에서 착용하였으며 겉감은 양단에 테모는 없다. 국내 확인되는 대부분의 갓저고리 안감의 모피가 양이나 토끼털인데 반해 이 갓저고리는 고양이털(猫皮)을 덧대어 이례적이다. 일반 갓저고리보다는 길이가 좀 짧고, 테모가 없는 이러한 저고리를 ‘한림갓저고리’라고 불렀으며 중년 여성들이 많이 입었다고 한다. 신윤복의 「야금모행(夜禁冒行)」에도 여인이 테모가 없고 안감에만 털을 댄 짧은 한림갓저고리를 입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저고리 소매 형태로 보아 1950년대에 다시 지어 입은 것으로 보인다.



갓저고리 고양이털 안감

12. 깃저고리 襦

Fur-lined Jacket for Women

1910년대

등길이 46 화장 76 품 56

고속경⁽⁶¹⁾ 기증

기증자의 조모인 조정란^(1895~1973)이 생전에 착용한 깃저고리로 1910년 평안남도 순천에서 혼인할 때 입었다. 회갈색 바탕에 정교한 구름, 박쥐무늬, 보상화문 寶相華紋이 시문된 양색단 兩色緞에 양털로 안을 넣고 물범털 테모를 둘렀다.



13. 깃저고리 襦

Fur-lined Jacket for Women

1930~40년대

등길이 46 화장 72 품 53

이승리⁽⁵⁴⁾ 기증

기증자의 시어머니 이영자^(1924~2017)가 친정어머니 조수조^(1899~1993)가 생전에 착용하던 깃저고리를 수선하여 입었다. 길감은 화문단 花紋緞에 안감은 양털이며 수구와 도련선 및 쏠선에는 테모를 대었다. 길 양단이 많이 낡아서 지금의 화문단으로 수선이 되었다.





14. 갓저고리 襦

Fur-lined Jacket for Women

1940~50년대

등길이 49 화장 77.5 품 55

최제영⁽⁴⁴⁾ 기증

기증자의 시어머니인 박상득(1893~1918)이 생전에 착용한 갓저고리이다. 수자화문 壽字花紋 단색단 길감에 양털로 안을 넣고 수구와 도련선 및 섯선에는 테모를 대었다.



15. 갓저고리 襦

Fur-lined Jacket for Women

1950년대

등길이 50.5 화장 76 품 60

최혜영⁽⁶¹⁾ 기증

기증자의 시모인 박혜영(1929~2013)이 생전에 착용한 갓저고리이다. 이 갓저고리는 1950년대 제작 후 계속 수선하여 기증자 시모가 돌아가기 직전까지 입었다. 길감은 기하문이 있는 단색단, 안감은 양털이고 수구와 도련선 및 섯선에는 테모를 대지 않았다.



16. **갓저고리** 襦
Fur-lined Jacket for Women
20세기
등길이 45 화장 77 품 57.5
김명혜 기증

겉감은 화문단, 안감은 양털이고 수구와 도련선 및 쏘선에는 테모를 대지 않았다.



17. **갓저고리** 襦
Fur-lined Jacket for Women
1960년대
등길이 46 화장 75 품 57
최혜영⁽⁶¹⁾ 기증

기증자의 시모인 박혜영^(1929~2013)이 생전에 착용한 갓저고리이다. 겉감은 금속사로 사슴, 작은 꽃, 향아리 문양을 넣은 일명 ‘반짝이’ 소재이고, 안감은 양털을 두었다. 수구와 도련선 및 쏘선에는 테모를 대지 않았다.



18. **갓저고리** 襦
Fur-lined Jacket for Women
19세기 말~20세기 초
등길이 50.5 화장 69.5 품 49.5
이효영⁽⁵⁶⁾ 기증

기증자의 할머니 이정은(1898~1950)이 입었던 갓저고리이다. 회갈색 문단에 광목 심지를 배접하고 안쪽에 남보라 소화문단으로 밑단, 걸섶단, 안섶단, 안깃, 수구에 선단을 넓게 대고 안은 흰 토끼털로 저고리 형태를 만들어 풀칠로 덧대었다. 털은 저고리 치수보다 작게 하여 남보라 선단이 보인다. 어깨선 안쪽으로 6cm 정도 접어넣고 바느질하여 마치 앞뒤 길을 이은 것 같이 보인다. 이는 해지거나 푸새한 후 줄어드는 것에 대비하여 넉넉하게 여유를 주기 위함이다. 걸감에 세한삼우^{歲寒三友}인 소나무, 대나무, 매화 문양과 난초문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조선 후기의 화가인 혜원 신윤복(1758~?)이 그린 풍속도 화첩 중 야금모행^{夜禁冒行}으로 여인이 갓과 섶에 털이 빠져나와 있는 갓저고리를 입고 털토시를 착용하고 있다. 조선조 성종과 중종 대 사대부 부녀들의 빈번한 초구^{貂裘} 착용으로 풍속의 퇴폐와 사치 문제가 거론되었지만 갓옷은 민간 속에 넓게 스며들었다.

신윤복 필 풍속도 화첩
「야금모행」
18세기 말~19세기 초
간송미술문화재단 자료 제공



19. **갓저고리** 襦
Fur-lined Jacket for Women
20세기 초
등길이 42 화장 65 품 47
경운박물관 소장

이 갓저고리의 안은 여러 모피 조각들을 감침질로 이어서 만들었다. 털의 뒷면에는
겉감에 붙였던 풀 자국이 있다. 갓저고리는 비단에 광목을 배접하여 짓는다. 안깃,
겉섣단, 안섣단, 수구, 밑단에 겉감으로 3cm 정도의 선단을 친다. 겉감 안에 미리
마련해 놓은 모피 안감을 끼워 풀로 붙인다. 안은 저고리보다 크기가 조금 작아서 털
밑으로 선단이 보이게 된다. 배색되는 선단을 치면 다른 분위기를 낼 수 있다.
19세기 말~20세기 초 지금의 안국동에서 옛 화신 백화점 앞에 이르는 거리에는
가지가지의 털들을 갖추어 놓은 가게인 모물점毛物店이 많았다. 광목을 땀 저고리를
모물점에 맡기고 어느 털을 넣어 달라고 하면 그곳에는 원하는 털을 여러 조각 이어
저고리 모양대로 안에 넣어 주었다. 털의 가죽에 찹쌀 풀로 풀칠을 하여 털이 아래로
누이게 하여 가죽을 광목에 붙이면 갓저고리가 완성된다.



갓저고리 좌측 뒷길에 찍혀 있다. 천화덕天和德
도장이다. '천화덕'은 1906년 당시 皮貨
취급상, 1919년, 1921년에는 무역상, 1925년부터
해삼·약재·모피 취급상이었다.

©이은상(2016), 중일전쟁 이전 시기(1912~1936) 조선의 원산화교



저고리의 소매와 길 등에 서로 다른
도장이 찍힌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 **갓저고리 襦**
Fur-lined Jacket for Women
1940년대
등길이 40 화장 46 품 46
정광숙⁽⁵⁹⁾ 기증

기증자의 외숙모 마귀연(1922~2016)이 시집을 때 받은 혼수품이다.
안감에 애양털을 대었다. 앞길, 뒷길은 통판의 가죽을 쓰고 소매
부분은 조각조각 이어 붙인 것을 볼 수 있다. 왼쪽 앞길 중앙에
관독이 어려운 도장이 찍혀있다.
애양털은 예로부터 갓저고리 만드는 데에는 가장 좋은 털로 치던
것이다. 새끼 양의 털이라서 가죽이 얇고 한 마리에서 나오는 털
조각이 작아서 갓저고리 한 벌을 지으려면 애양털 15~16조각이
든다.



앞길 중앙에 도장이 찍혀 있다.

3부 털배자

점쳐
입는
따뜻한
지혜



배자는 조선 복식에서 저고리 위에 입는 덧옷이다. 모피를
댄 털배자는 보온성을 높이면서도 활동성을 유지하였다.
털이 귀해서 길감을 교체하면서 대물림해서 입었다. 길으
로는 단정함을, 안으로는 따뜻함을 지켜내는 조선 여성의
지혜가 그 안에 담겨있다.

털배자 褡子
Fur-lined Vest for Men
조선 후기
길이 54 폭 39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저고리 위에 덧입는 겨울철 남성용
털배자로 뒷길이 앞길보다 길다. 회색
광목에 양털 안감을 덧댄 이 털배자는
좌우 깃이 중심에서 만나는 배자 깃에
동정을 달았다. 앞쪽 옆선에는 허리끈을
달고, 뒤쪽 옆선에는 빨고리를 달아 끈을
걸어 앞에서 묶는 형태이다. 옆선과
도련선 및 쏘선에는 테모를 둘렀다.



21. 털배자 褡子
Fur-lined Vest for Men
조선 후기
길이 66 폭 49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저고리 위에 덧입는 겨울철 남성용
털배자로 뒷길이 앞길보다 조금 길다.
화문단(花紋緞)에 털 안감을 덧댄
이 털배자는 좌우 깃이 중심에서
만나는 배자 깃에 동정을 달았으며,
호박 단추가 있다. 앞쪽 옆선에는
허리끈을 달고, 뒤쪽 옆선에는
빨고리를 달아 끈을 걸어 앞에서 묶는
형태이다. 옆선과 도련선 및 쏘선에는
테모를 둘렀다.





명절에 찍은 가족사진

1952년

사진 좌측 하단부터
기증자 어린시절, 저고리
입은 할머니, 작은
할머니, 털배자를 입은
기증자 어머니



기증자 할머니 장태랑(1904~2003)의 유품이다. 검은색 바탕에 남색
포도 무늬가 있는 문단(紋段)에 안감은 양털을 두었으며 옆선과
도련선 및 쏠선에는 테모를 둘렀다. 이 배자는 대물림하여
어머니가 입기도 하였다.



22. 털배자 褸子

Fur-lined Vest for Women

1950년대

길이 32.5 폭 49

임영희⁽⁵¹⁾ 기증

23. 털배자 褸子
 Fur-lined Vest for Women
 1950년대
 길이 37 폭 45
 윤난지⁽⁶⁰⁾ 기증

기증자의 어머니 원경애(1928~)가 1953~1954년경에 착용한 털배자이다. 파란색 바탕의 화문단에 안감은 토끼털을 두었으며 옆선과 도련선 및 섶선에는 테모를 둘렀다.



왼쪽부터 아버지
 윤석영(1928~2009), 기증자의
 어린시절, 어머니 원경애

기증자인 석주선(1911~1996)이 생전에 착용한 털배자이다. 곱갈은 분홍색 바탕의 숙고사熟庫紗에 안감은 토끼털을 두었으며 옆선과 도련선 및 섶선에는 테모를 둘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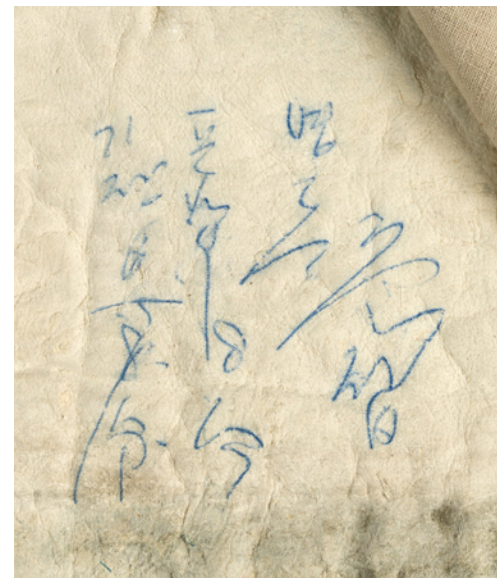


가족사진
 1930년
 국립민속박물관 자료 제공

전주 류씨 일가의
 가족사진으로 좌측의 여인이
 위 유물과 유사한 털배자를
 착용하고 있다.



24. 털배자 褸子
 Fur-lined Vest for Women
 1928년
 길이 39 폭 48.5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25.

털배자 褡子

Fur-lined Vest for Women

20세기

길이 34 폭 49

박경자⁽⁵⁰⁾ 기증

겉감은 기하문이 있는 문단, 안감은 토끼털을 두었으며 옆선과 도련선 및 쇠선에는 테모를 둘렀다.

국가무형유산 배접장 김포영(1925~2014)의 서명이 배자의 내피에 적혀 있다.

26. 털배자 褸子

Fur-lined Vest for Women

1940~50년대
길이 42.5 폭 47
최미경⁽⁶³⁾ 기증



기증자의 할머니인 진윤희(1908~1996)가 생전에 착용한 털배자이다.
겉감은 기하학 무늬가 있는 문단, 안감은 토끼털을 두었으며
옆선과 도련선 및 섹션에는 테모를 돌렸다.

기증자의 할머니 박영선(1900~1982)이 입었던 털배자이다. 겉감은
보상화문寶相華紋과 화문이 있는 반짝이 양색단이고, 안감은 양털을
두었으며 옆선과 도련선 및 섹션에는 테모를 돌렸다.



27. 털배자 褸子

Fur-lined Vest for Women

1930~40년대
길이 38 폭 47.5
민용자⁽⁵¹⁾ 기증

기증자의 조모인 조경란(1895~1973)이 입었던 털배자이다. 배자의
겉감은 금·은사단, 양색단, 문단 등의 직물에 안감은 토끼털을
두었으며 옆선과 도련선 및 섹션에는 테모를 돌렸다.

28. 털배자 褸子

Fur-lined Vest for Women

20세기
길이 44 폭 55
고숙경⁽⁶¹⁾ 기증



점박이물범(海狗皮)

기산 김준근 조선풍속도(스왈론 수집본)

1890년대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자료 제공

점박이물범(海狗皮)의 몸빛은 회색에서
황갈색 바탕에 검은색과 흰색
점무늬가 있다. 물범의 피부는
부드러운 털로 덮여 있는데 1년에 한
번 이상 털갈이를 해서 방수 및 보온
기능을 유지한다.

29. 털배자 褸子

Fur-lined Vest for Women

1930~40년대

길이 50 폭 50

윤정임⁽⁴⁶⁾ 기증



기증자의 시어머니 이간난^(1911~1992)이 입었던 털배자이다. 겹감은 원수문^{圓壽紋}과 길상문이 있는 문단에 안감은 양털을 두었으며 옆선과 도련선 및 섶선에는 테모를 둘렀다.



30. 털배자 褸子

Fur-lined Vest for Women

1930~40년대

길이 41 폭 45

이승리⁽⁵⁴⁾ 기증



기증자의 시어머니 이영자^(1924~2017)가 친정어머니 조수조^(1899~1993)의 털배자를 대물림하여 입었다. 겹감은 화문단에 안감은 토끼털이며 원래 테모가 상하여 밍크로 교체해서 다시 만들어 입었다.

기증자의 어머니가 입었던 털배자이다. 겹감으로 당시 유행하던 반짋이라는 옷감을 사용하였고 안감은 토끼털을 두었다. 옆선과 도련선 및 섶선에는 테모를 둘렀다.



기증자의 어머니 유품이다. 겹감은 양단, 안감은 양털을 두었으며 옆선과 도련선 및 섶선에는 테모를 둘렀다.



31. 털배자 褸子

Fur-lined Vest for Women

1950년대

길이 43 폭 49

류수인⁽³⁶⁾ 기증

32. 털배자 褸子

Fur-lined Vest for Women

20세기

길이 35 폭 49

장희순⁽³⁸⁾ 기증



33. 털배자 褸子

Fur-lined Vest for Women

1950년대
길이 38 폭 47.5
경운박물관 소장

겉감은 만초보문 금사단, 안감은 토끼털을 두었으며 옆선과
도련선 및 섰선에는 테모를 둘렀다.



34. 털배자 褸子

Fur-lined Vest for Women

1935년
길이 36.5 폭 44
이덕희⁽⁴⁷⁾ 기증

기증자 어머니의 1935년 결혼 혼수품이다. 겉감은 청색 바탕에
사군자와 복福, 쌍희雙 무늬가 있는 문단, 안감은 토끼털을
두었으며 옆선과 도련선 및 섰선에는 테모를 둘렀다.



한복디자이너 이현정^(1934~2019)이 착용한 털배자로 기증자의
어머니 유품이다. 안감은 토끼털을 두었으며 옆선과 도련선 및
섰선에는 테모를 둘렀다.



36. 털배자 褸子

Fur-lined Vest for Women

1940년대
길이 33.5 폭 42.5
이금자⁽⁴⁷⁾ 기증

기증자의 어머니인 허송자^(1921~1959)가 생전에 착용한 털배자이다.
겉감은 문단, 안감은 양털을 두었으며 옆선과 도련선 및 섰선에는
테모를 둘렀다.



35. 털배자 褸子

Fur-lined Vest for Women

20세기
길이 34 폭 48.5
안소명 기증



37. **털배자** 褸子
Fur-lined Vest for Girl
1948년경
길이 23.5 폭 38
김희경 기증



기증자의 어머니 문옥희(1920~1990)가 기증자 3살 때 만들어 입혀주던 여아 털배자이다. 걸감은 화문단에 금박이 찍혀 있다. 안감은 양털을 두었으며 옆선과 도련선 및 쇠선에는 토끼털을 대었다.

38. **털배자** 褸子
Fur-lined Vest for Girl
1950년대
길이 25.5 폭 36
경운박물관 소장



여아 털배자로 걸감은 녹색색 바탕에 검정 국화문이 있는 화문단, 안감과 테모는 토끼털이다.

킬 목사와 가족
20세기 초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도서관 자료
제공

1907년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로 내한하여 평양에서
활동한 앨리스 버츠(Butts, Alice
M. 1879~?) 수집 사진으로 맨
좌측 여자아이는 길이가 짧은
털배자를 입고 있다.



털배자를 입고 있는
여자아이
1900~1930년
미국 연합감리교회
아카이브(GCAH) 자료 제공



39. 털배자 褸子

Fur Vest for Women

1930년대
길이 53 폭 52
이선자 기증

여성이 착용했던 털배자이며 토끼털로 제작되었다. 대부분의 배자가 안감과 테모에 털이 달렸지만, 이 배자는 여러 가죽 조각을 이어 만들면서 소매 부분이 짧게 달린 점이 특징이다. 성협(性協)의 풍속화 중 ‘투전(투전)’에도 이러한 형태의 털배자가 확인된다.



앞



뒤



성협, 풍속화 「투전」
19세기 말
국립중앙박물관 자료 제공

풍속화 우측 하단의 남자가 털이 길으로 나와 있는 배자를 입고 있다.





털배자 입은 신부

1920년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자료 제공

(원소장처: 독일 상트 오티리엔수도원 아카이브)



40. 오현우 신부 상차림

1934년

가로 26.7 세로 21.2

심재환⁽⁴³⁾ 기증

개성 신부 석윤숙과 신랑 박상화의 결혼식

1942년

박성실 자료 제공

신랑은 사모관대를 입고 얼굴 가리개를 들고 있다. 신부는 반회장저고리 위에 털배자를 입었으며 머리에는 모을사 꽃으로 장식된 족두리를 얹고 커다란 족잡을 꿸고 있다.



신부와 들러리가 털배자를 입고 있다.